

# 자연과 사람에 귀기울이는 건축가

##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 펴낸 김석철씨

건축가 김석철(54)씨는 그가 설계한 건축물에 한국의 문명과 한국의 자연, 한국인의 숨결을 함께 담아내고자 한다. <예술의 전당>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제주도 영화박물관> 등 그가 설계한 건축물들은 한국을 가장 집약적으로, 가장 아름답게 표현해내는 훌륭한 건축물로 손꼽힌다.

고속전철의 경주 구시가지 통과를 누구보다 먼저 반대하는 등 우리나라 도시문제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김석철씨의 도시와 건축에 대한 남다른 생각은 철학·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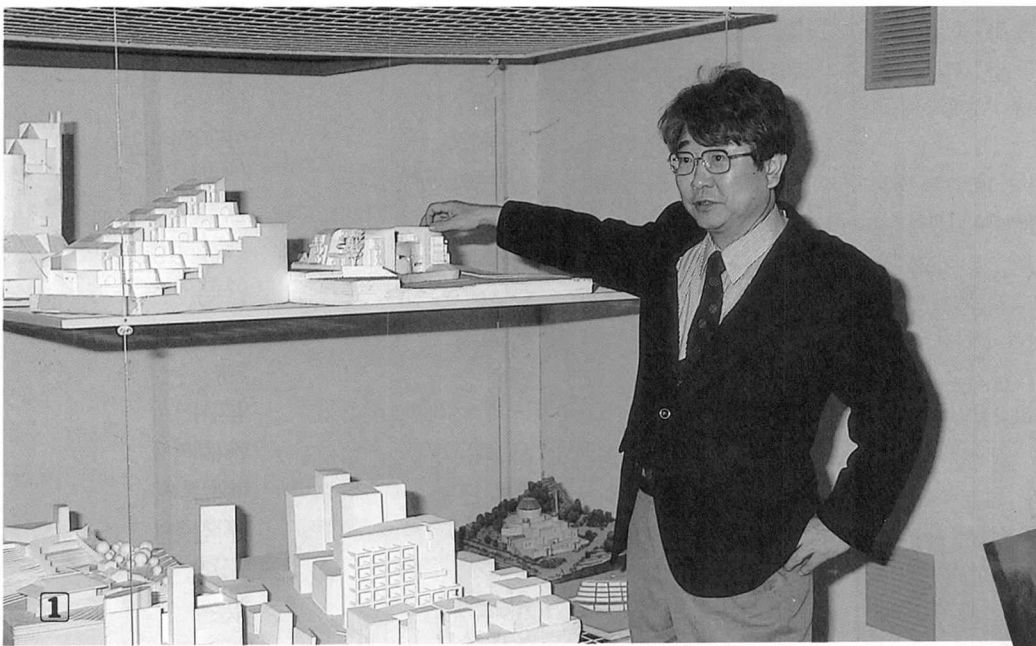
예술 등 다방면에 걸친 광범위한 독서와 사색을 바탕으로 한 인문주의적 성향에 기초한다. 그가 최근 펴낸 《천년의 도시 천년의 건축》(해냄)은 일찍이 존재론에 눈떠 철학서적을 탐독하던 청년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의 지적인 편력과 30년에 이르는 건축가로서의 삶과 철학이 고스란히 배어 있다.

“건축을 통해 인류의 문명과 역사를 ‘격물치지(格物致知)’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매력입니다.”

인간의 기억이나 지식의 산물인 책은 그것을 기록한 이의 주관이나 주변상황에 의해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왜곡됐는지 후대인들이 확실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러나 건축물은 거짓없이 웅변하지 않고도 있는 그대로의 문명과 역사를 전해준다.

지금도 토요일에는 산행을 하고 내려오다 서점에 들러 줄잡아 10권 안팎의 책을 사들고 들어가야 마음이 편할 만큼 김석철씨는 책을 많이 읽는다. 김석철씨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은 마치 아름다운 자연을 대하고 감동받는 것과 같다. 하나 보탠다면 《토지》를 읽으면서 《전쟁과 평화》를 떠올리고 《로마인 이야기》를 들추다가 다시 《로마제국 쇠망시》를 꺼내 이리저리 엮어가며 읽는 재미가 더 있을 따름이다.

“지식인이라면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사유와 고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김석철씨는 최근 북한산에서 남산으로 녹지가 이어지며 주변의 역사·문화시설들이 편리하게 연결되는 ‘서울 문화예술의 거리’를 구상중이다. — 박남정 기자



① 자연과 문명과 사람을 함께 담아낸다는 것이 김석철씨의 건축 철학이다. 아키반의 지하실에는 그가 직접 설계했던 건축물들의 모형이 전시돼 있다.

② 책을 많이 읽지만 책 속의 지식에 탐닉하거나 집착하지 않는다. 지하에 서가를 마련, 손때묻은 책과 자료들을 모아두었다.

③ 공중에서 촬영한 서울의 도심에는 녹지가 전무하다. 김석철씨는 북한산과 남산의 녹지를 잇고 주변 문화·예술 공간 이용을 쉽게 하는 ‘서울 문화예술의 거리’를 구상중이다.

④ 고풍스런 우리 옛 소품들은 한국문명과 미학을 자연스레 몸에 익히고 그것을 건축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담긴 것들이다.

⑤ 세계의 위대한 건축물들을 보면서 “인류의 문명사에 새로운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들 만큼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김석철씨의 ‘세계건축기행’은 책으로 묶여 3월 경에 창작과비평사에서 출간될 예정이다.

⑥ 읽고 난 책은 사무실 곳곳에 비치된 책꽂이에 꽂아 둔다. 직원들 누구나 보고 싶을 때 꺼내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다. 직원들은 김석철씨의 독서력에 혀를 내두른다.



